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KIA TIGERS 끝없는 추락

〈하〉 돌파구는 없는가

KIA팬들은 7연패에 빠졌던 지난 23일 두산전에서 “끝지면 어쩌나, 최선을 다하는 KIA, 아름답게 화이팅~”,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팬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현수막을 잠실구장 곳곳에 내걸고 선수단에 힘을 불어넣었다.

경기에 저도 팬들의 박수 받는

호랑이 ‘野性’ 되찾아야

팬들의 성원 덕분이었던 지, KIA는 지난 24일 두산전에서 11-2로 대승을 거뒀고, 선수단은 경기가 끝난 뒤 3루측 KIA팬들을 향해 큰 절까지 올렸다.

하지만 모처럼 맞이한 승리에 들뜬 나머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었다. 이날 광주로 복귀한 ‘호랑이군단’ 중 일부는 밤늦게 까지 젊은 여성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또 젊은 선수 일부는 신임 장성호 주장이 팀 단결을 위해 내놓은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놓고 “우리가 프로인데 머리 스타일이 엉망이 됐다. 기분 나쁘다”라며 불만을 털어냈다고 한다.

팬들은 요즘 서정환 감독 경질과 정재공 단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리멸렬한 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KIA 팬들은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강해지는 호랑이가 최근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고,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선수들도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즌이 중반에 접어들 지금, 부진 탈출의 해결 방안은 단 하나다. 구단과 선수단-팬이 힘을 모아 승부근성을 상실한 팀 분위기를 살려내는 것이다. 감독이나 단장해임 문제는 시즌 후 성적이 결정해줄 뿐이다.

구단-선수단-팬 힘 모아야

스포츠의 가장 큰 재미 중 하나는 역전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놓고 ‘스포츠크럽’이라고 한다.

특히 몸을 사리지 않고 뛰는 프로정신에 팬들은 열광하

끝까지 달리는, 저력의 타이거즈 부활 기대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팬들도 외면안해

는데 지금 팬들은 KIA의 재기를 열원하고 있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는 팀의 분위기를 재 정비해 올 시즌 4강 진출의 꿈을 이뤄내는 데 있다. 희망적인 소식도 들린다.

선발 라인업이 7월초부터 안정 궤도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프로야구 8개 구단의 해결 과제인 ‘세대교체’ 작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단장-감독-코치-선수-프런트-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호랑이 군단의 속원인 ‘V10’의 꿈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부진한 고침들 외신상당... 분위기 쇄신 시급

KIA는 26일 현재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67게임을 소화했다. 26승 40패 1무로 선두 SK와는 12.5 게임차다. 승패의 적자폭은 ‘14’다.

4강 진입의 잣대가 되는 5할 승률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4승 무패로 질주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다만 타 팀의 성적 하락에 따라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우선 7월 초 선발 투수 이대진이 복귀한다는 점이다. 이대진이 가세하면 KIA 마운드도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원투 펀치’인 윤석민-스코비에 이어 이대진-신용운으로 연결되는 4선발 체제는 타 구단에 뒤지지 않는 전력이다.

여기에 로드리게스-한기주의 ‘필승계투조’는 최강을 자랑한다.

타선에선 부상 투혼중인 홍세완과 최희섭이 빠른 회복세에 올라왔다. 발목 부상을 입은 이응규도 정상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 현 선발 타선서도 이현근과 장성호가 최상의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차세대 거포’ 김주형의 홈런 릴레이는 큰 힘이다.

이제 막 시즌 절반을 소화했고, 아직도 60여 게임이 남아있다. 정신만 차린다면 늦지 않은 시점이다.

안되면 내년 시즌 지금부터 준비를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리는 ‘서머리그’가 포스트 시즌 여부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패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다면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올 시즌 주전들의 줄 부상으로 타선에선 김주형, 송산, 김연훈, 김경진, 류재원 등이, 마운드에선 양현종, 손영민, 진민호 등이 1군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실전 경험이 없는 탓에 잦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거포’ 김주형은 폭발적인 타격감으로 든든한 지원병이 되고 있다. 내야수 김연훈도 출장 경기수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비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올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된다면 신진 선수들만 꾸준히 키워낸다면 2008시즌 KIA호의 ‘V10’ 달성 전망도 밝아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S여자오픈골프 이모저모



김인경 하마터면 예선 탈락할 뻔

항공사 실수로 골프채 안실어...남의 채로 경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LPGA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깜짝 스타로 등장한 김인경(19)이 하마터면 US여자오픈 출전권을 놓칠 뻔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인경은 현지 날짜로 10일 오후 메릴랜드주에서 치러진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을 마치고 11일 오전 플로리다주 히드로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 예선전에 출전하기 위해 밤 비행기를 탔다.

히드로공항에 밤 12시에 내린 김인경은 항공사 실수로 골프채가 비행기에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항공사는 오전 9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골프채를 실어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예선대회 티오프 시간이 오전 9시였기에 김인경은 US여자오픈 출전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다급한 김인경은 선배 선수들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장정(27·기업은행)과 통화해 했고 새벽 2시경 장정의 집으로 찾아가 장정의 아버지 장성중 씨의 골프채를 빌려 겨우 1라운드를 치를 수 있었다.

김인경은 1라운드를 이븐파로 마친 뒤 오후에 배달된 자신의 골프채로 치른 2라운드에서 2언더파를 쳐 함께 2언더파 140타의 좋은 성적으로 US여자오픈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위성미 “대학 끝까지 마칠것”

“컷 통과 못해도 실망하지 않겠다”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8·미셀 위)는 US여자오픈을 앞두고 여전히 보도진의 최우선 취재 대상으로 ‘인기’를 누렸다.

로레나 오초야(멕시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모건 프레셀(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등 강력한 우승 후보 못지 않은 보도진의 관심을 끌어모은 위성미는 전과 다름없이 수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가지는 등 분주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위성미에 대한 관심은 ‘우승 후보’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라는 인식이 주류였다.

대부분 매체는 ‘미셀 위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다룰 가능성은 없다’는 냉정한 전망을 내놓았고 ‘첫날부터 80타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긴트리뷰트에서 16번홀까지 14오버파를 치다 경기를 포기해 고의 기권 의혹을 산데다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에서도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인 위성미에 대한 평가가 바닥이라는 사실이 보도진의 태도에서 드러난 셈.

하지만 그는 늘 그렇듯 당당했다. 미셀 위는 “다친 손목은 많이 나아졌다”면서 “남자대회 출전을 포기한 것은 긴 코스에서 충분한 비거리를 내기에는 아직 손목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셀 위는 또 “이번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기를 바라지만 안된다면 실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스탠퍼드대학에 진학하는 위성미는 “타이거 우즈처럼 중퇴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학은 끝까지 마칠 생각이고 따라서 LPGA투어 멤버가 되는 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 장타자에 유리

깊고 질긴 러프 부드러워지고 클럽 잘 빠져나가

○...US여자오픈의 상징인 깊고 질긴 러프가 뜨겁고 건조한 날씨 탓에 무장해제되면서 장타자에게 절대 유리한 코스가 됐다는 분석이다.

연습 라운드를 돌아본 선수들은 “러프가 깊긴 하지만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힘이 없어 채가 잘 빠져 나간다”며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러프의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6700야드에 육박하는 긴 코스에서 장타자들이 마음껏 드라이버를 때릴 수 있어 ‘장타자가 우승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그린이 빠르고 딱딱해 짧은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장타자의 이점이 더욱 위력을 떨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보다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선수들에게 우승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두산의 경기에서 KIA가 승리한 뒤 서정환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큰절을 한 뒤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협뉴스